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

신학 및 예배 사무처



MATTHEW 25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

신학 및 예배 사무처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사역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전과 세가지 주안점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만일 당신이 아직 이 비전과 세가지 주안점에 익숙하지 않다면,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를 방문해보라. 이 운동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공부에 대한 읽기, 성찰 및 토론을 위한 안내서는 9 페이지와 10 페이지에 있다.

서론

2016년 미국장로교 총회는 마태복음 25장 교회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로 했다. 2018년 총회는 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계획을 승인했다. 그 계획이 마태복음 25장 비전이다. 마태복음 25장 비전은 세 가지 주안점을 갖고 있다: 회중 활성화 구축,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 만연한 빈곤 근절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주안점을 달성하기 위해, 수백 개의 회중과 많은 노회, 대회 및 기타 조직이 마태복음 25 비전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장로교의 교인들이 마태복음 25장 비전에 대해 알아가면서, 질문을 제기했다. 이들의 질문 중 몇몇은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한 질문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진정으로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하고 있는가였다. 이 특정 질문은 깊고 보다 보편적인 질문에 근원을 두고 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다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우리 미국장로교인들은 성경에 뿌리내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했음을 기억함으로써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시작된다. 이러한 결심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마태복음 25:31-46과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 가지 주안점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깊고 보다 보편적인 질문을 탐구할 것이다.

출발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찾는가

우리는 성경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우리는 이것을 규례서의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에서 명확히 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믿음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계율을 주신다. 성경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성적인 건전한 판단과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¹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부이다. 마태복음 25 장 비전은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진정으로 마태복음 본문에 기반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31-46은 "인자"(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오시는 환상을 보여준다. 모든 민족(과 그 구성원)은 그들이 "내 형제 자매 중 가장 작은 자"를 돌보았는지—아니면, 돌보지 않았는지—로 심판받는다 (40 절, 45절도 보라). 이 환상에서, 예수님은 행해지고 있거나 무시되고 있는 6 가지 특정 형태의 돌봄을 언급하신다.

-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5-6, 37-9, 42-4)

이러한 일을 행하되 숨은 동기 없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을 자로 판단된다. 이들은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다.(34절)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받는 자"로 심판받는다.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41절) 언급된 6 가지 어려움: 굶주림, 목마름, 소외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 언급된 6 가지 대응: 먹을 것을 줌, 마실 것을 줌, 공동체 안으로 환대함, 입을 것을 줌, 병들었을 때 돌봄,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함.²

이 목록에 대한 첫번째 질문: 이 목록은 완전한가? 이 목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하신 모든 어려움을 망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다른 어려움들도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시는가?

이 목록은 완전한가? 시험 케이스: 예수님의 사역

여섯 가지 어려움과 그들에 대한 돌봄이 완전한 목록일까? 하나님은 오직 이 여섯 가지를 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실까? 혹은 이 목록은 예를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예시인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제 자매 중 가장 작은 이"를 돌보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자체를 살펴볼 수 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치유를 많이 베푸셨고, 많은 가르침과 선포를 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모으셨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보냈다. 7-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셨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와 일치한다.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같은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귀신 들리는 것은 성경에 묘사되는 바에 따르면 정신 질환과 매우 유사하다. 만일 죽음이 궁극적인 병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병든 이를 돌보는 일의 한 형태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병든 자를 돌보는 일의 한 예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25:31-46에 나오는 심판의 6개 기준 중 5개를 건너뛰신 듯하다.

다음 장인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께 직접적으로 여쭙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1: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역을 묘사하시면서 답하셨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11:4b-5). 보지 못하는 이에게 시력이 회복되는 것, 걷지 못하는 이에게 보행 능력이 회복되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과 같이, 모두 병든 자를 돌보는 예이다. 다른 다섯 가지 심판 기준은 건너 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또 다른 임무가 추가되었다.

마태복음 15:30-31에서 화자는 예수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 한 번 여기에서는 병든 자에 대한 수많은 돌봄이 언급되지만 다른 5 가지 형태의 어려움은 나오지 않는다.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다섯가지 어려움의 일부가 언급되고 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하루를 보낸 군중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 두 번 나온다 (마태복음 14:13-21; 15:32-38).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사람"의 귀신 들린 자 둘을 치유하셨다. 그들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소외된 이들이었다(8:28-34).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소외된 이를 환대하셨다. 하지만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언급된 6개의 어려움 중 다른 것은 예수님 삶의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셨다는 기록은 없다. 여섯 가지 어려움 (배고픔, 목마름, 소외됨, 혈벗음, 병이 들, 옥에 갇힘)에 사용된 단어가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에 얼마나 적게 나타나는지는 놀랄 정도로 적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여섯가지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25:31-46에 나타나는 여섯 가지 어려움과 그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 하신 어려움을 모두 망라하는 목록일까? 하나님은 오직 이 여섯 가지를 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를

1. 우리 교단에서 목사, 사역장로, 집사로 안수 받은 이들에게 이러한 약속은 안수 질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신은 성경의 권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 받겠습니까?" (W-4.0404d, 네번째 안수 질문은 안수받는 이들 모두가 답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수 질문도 이와 관련되는데, W-4.0404b에 쓰여있다.)
2. 이러한 구절을 탐구하는 성경 공부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다: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matt-25-resources. 특히 이 문서와 동시에 공개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성경공부"를 보라.

판단하실까? 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여섯가지를 담은 목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종류의 일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목록은 열려 있다. 각 경우에 명확한 것은 "가장 작은 자"라고 묘사될 수 있는 이들이 경험한 것, 인간으로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³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민족과 그 구성원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원이 전혀 없는 "가장 작은 이"가 더욱 뼈저리게 경험하는 절실한 어려움들을 돌보라는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태복음 25:31-46이 인도하는 바에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여섯 가지 어려움과 그에 대한 돌봄을 담은 목록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마태복음 25:31-46이 인도하는 바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까? 앞서 인용한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의 마지막 문구는 그러한 방식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성적인 건전한 판단과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이 구절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충실히 살려고 노력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구함으로써,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5:31-46에 열거된 여섯가지 어려움과 돌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대와 맥락에서 누가 "가장 작은 이"인지, 그들이 마주한 깊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들어 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해서 인도받기를 구하면서 분별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의 첫번째 부분(미국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1967년 신앙고백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어느 때 어느 곳이나 특정한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행동을 환기시킨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공범자로서의 겸손을 가지며,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구체적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힘쓴다." 그리고 나서 고백은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현재에 있어서 특히 긴급한 일들이다." (미국장로교 신앙 고백서, 9.43)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분별력을 발휘하겠다는 약속은 1967년에 처음 확립된 것이 아니다. 장로교 전통에 걸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분별력, 즉 성경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처한 특정 상황에 대한 합리적 사고의 적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 세기에 쓰여졌고 장로교 전통을 세우는 데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확고히 한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 구원과 믿음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 속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deduced)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과 생활양식에 공통된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관해서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에 의하여, 그리고 언제나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6.006)

마태복음 25:31은 일반 법칙을 세웠다: 인간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어떤 형태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명철"의 사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명철"은 사려깊고 신실한 분별의 한 요소이다.

3. 누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묘사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확실히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작은 이로 보시지 않으셨다.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인간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마태복음 25:31-46은 누구의 판단이 더 훌륭하고 믿을만한지 명확히 깨달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아들/목자/왕"의 판단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46장에서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31-46은 우리에게 6개의 인간의 절실한 어려움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 이 목록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목록은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의 종류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를 식별하게 한다. 즉, 오늘날 “(내 형제 자매) 중 가장 작은” 사람들의 깊은 인간적 필요를 식별할 때 분별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다행히 (미국장로교 안의) 우리는 이러한 분별을 오랫동안 실천해왔다. 분별을 분명히 표현한 곳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우리는 구조적 인종 차별과 만연한 빈곤에 대응하고 활기찬 회중을 만듦으로써, “형제 자매 중 가장 작은 사람들”의 깊은 어려움에 부응하라는 부름을 분별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명확하다: 인종 차별은 죄이고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⁴ 위에 인용된 1967년 신앙 고백 구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구체적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힘쓴다”는 인종차별은 철폐해야 할 죄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서는 땅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보편적 가족이 되게 하셨다. 그의 화목의 사랑으로 형제들 간의 장벽들을 극복하며, 사실 또는 상상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 행사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인종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동료 인간을 미묘하게라도 배척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런 이들을 지지하는 회중이나 개인,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그들이 표명하는 신앙을 모욕한다. (9.44)⁵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 행사에서 그리해야 한다.⁶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로 취급받는 삶 안에서, 또 그 삶을 통해서 구조적 현실을 명명해왔다. 수십 년동안 우리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조적 인종 차별을 철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해왔다.

우리 신앙 고백은 명확하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경험한 이를 계속 궁핍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직 패턴을 뿌리뽑으라고 명하셨다. 인종차별을 죄라고 거론한 직후,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가난을 다룰 것을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화해를 이루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누군가 궁핍함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침해하는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자신을 궁핍한 사람이나 착취당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셨기에, 세상의 가난한 이의 문제는 곧 그의 제자들의 문제이다. 궁핍이 부정한 사회 구조의 결과물이거나, 방비책을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착취이거나, 국가 자원의 결핍이거나, 기술적 지식의 결여이거나, 인구의 신속한 증가이거나, 그 어느 것의 산물이든지 막론하고 교회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빈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경제적 사건들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느 한 사회 계급에게만 열려있거나, 자기가 베푸는 자선에 대하여 사의를 기대하는 교회는 화목을 하나의 조소거리로 만들며,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9.46)

신앙 고백은 분명하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서, 그리고,

4. 추가 문서를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신앙고백에 명확히 밝혀왔다. 이 중에는 가장 최근의 총회의 신앙고백, “역사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관해 — 인종 차별의 죄와 이에 대한 행동의 촉구에 반응함”이 있다.

5. 1967년도 신앙고백의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이 신앙고백은 2002년 제 214회 총회가 작성했다. 아래 인용문에도 동일한 판이 사용된다.

6. 벨하 신앙 고백은 인종차별이 죄라는 확신 위에 만들어졌고, 인종을 기반으로 교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사람들로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것이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를 즐기고, 지시와 능력과 위안을 받고, 그 자체의 단체 생활을 정하고 조직하며, 시험을 받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시대의 요구를 따라 적합하게 세상의 사건에 대하여 발언하며 행동한다. 교회는 흩어져서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사사롭게나 사회 생활에서나 하나님을 섬긴다. (9.36-37)

회중의 활력은 구조적 인종 차별 철폐와 만연한 빈곤 근절이라는 공생관계에 있다. 회중의 활력을 구축하는 것은 구조적 인종 차별 철폐와 만연한 빈곤 근절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 구성원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반대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구조적 인종 차별과 만연한 빈곤을 제거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회중의 활력을 강화하는 힘이 있다.

마태복음 25 장 비전은 마태복음 25:31-46이 보여주는 지침을 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미국장로교의 교인들이 마태복음 25장 비전에 대해 배울 때, 그들은 궁금점을 제기했다. 이것은 옳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매우 장로교적인 방식이다! 그들이 한 질문들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진정으로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하고 있는가"가 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깊은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⁷ 성경에 의해 인도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분별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태복음 25:31-46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 이 심판에서 모든 민족은 동족들이 겪는 절절한 어려움을 돌보는 것(혹은 돌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심판 받는다. 특히 가장 작은 이라고 간주되는 이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다. 가장 작은 이라는 규정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 의해 내려진 판단이다. 마태복음 25:31-46은 여섯 가지 어려움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알려준다. 이 여섯가지는 예시일 뿐, 우리가 보고 극복하도록 일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담긴 목록은 아니다. 마태복음 25:31-46을 현재에 맞게 주안점을 맞추는 일은 분별을 요구한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중 가장 작은 이로 취급 받는 이가 경험하는 절절한 어려움을 분별하는 일이다.

미국장로교 안의 우리는 이러한 분별을 오랫동안 실천해왔다. 마태복음 25 장 비전의 세 가지 주안점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극복하기 위해 일 하시고, 보고 극복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별한 것에 대한 표현이다.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마태복음 25:31-46에 나오는 지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려움을 보고 대응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

7. 1967년 신앙 고백은 성경에 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충족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그에 대하여 성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하고 복종하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일하고 권위있는 증언을 한다."(9.27 - 이탤릭체는 첨가됨)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

읽고 성찰하고 토론할 때 사용할 지침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는 특별한 질문을 탐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전과 세가지 주안점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만일 당신이 아직 이 비전과 세가지 주안점에 익숙하지 않다면, 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을 방문해보라. 이 운동을 소개하는 좋은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에 참여하는 법

이 지침은 개인이나 그룹이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는 마태복음 25장 비전과 그 세 가지 주안점에 대한 핵심 질문을 둘러싼 성찰이다. (세 가지 주안점은 회중의 활력 구축, 구조적 인종주의 철폐, 만연한 빈곤 타파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비전과 세가지 주안점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 가지 주안점은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안에는 또다른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질문에 가장 잘 답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는 일련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질문들을 알아보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일련의 질문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제대로 알기를 읽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숙고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 후에는 이 시리즈에 나오는 각각의 질문들을 탐구하기를 촉구하는 질문들이 나온다.

질문 1: 신실하게 살기 위한 인도하심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서론"과 "출발점: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읽자.

탐구 질문:

-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 규례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 교단 헌법을 통해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법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질문 2: 마태복음 25:31-46은 신실하게 사는 법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진정으로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하고 있는가?"와 "이 목록은 완전한가? 시험 케이스: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읽으세요.

탐구 질문:

- 심판에서 고려될 6가지 어려움과 6가지 돌봄의 형태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누가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여섯 가지 돌봄에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 "그들 중 가장 작은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작은 자"를 결정합니까?

질문 3: 만일 마태복음 25:31-46이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마태복음 25:31-46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를 읽으세요.

탐구 질문:

- 마태복음 25:31-46이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 분별은 무엇입니까?
- 어떻게 분별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도록 돕습니까?

질문 4: 분별은 마태복음 25:31-46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발견하도록 돕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46장 안에서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분별을 적용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부분을 읽으세요.

탐구 질문:

-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분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신앙 고백서의 세 단락은 마태복음 25:31-46에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결론

"마태복음 25장 비전은 마태복음 25:31-46이 보여주는 지침의 초점을 우리 시대에 맞게 맞춘 것이다" 부분을 읽으세요.

탐구 질문:

-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세가지 주안점은 어떻게 마태복음 25:31-46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 마태복음 25:31-46과 마태복음 25 장 비전의 세 가지 주안점에 대해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습니까?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100 Witherspoon St. | Louisville, KY
40202
PDS #10-050-21-008